

달이 차가운 시선으로 고요한 대지를 지켜보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에 한 무리의 중무장한 사람들이 다급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각자 다양한 갑옷과 무장을 갖춘 그들은 마치 옛날 이야기에서 용과 괴물을 잡기 위해 모인 용사들 같았다. 그런 그들도 학교에 지각한 학생처럼 어딘가 불안한 듯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그들의 행선지는 바로 그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알현실 - 바로 오늘의 목표인 백색 여왕 바이세느 슈바르치에가 거의 상시 머무는 장소였다.

바이세느 슈바르치에가 누구인가. 현존하는 인류 최강의 제국인 동에스터 제국의 유일무이한 여제로 등극하자마자 여지껏 본 적 없는 강도높은 팽창정책으로 제국의 적들을 차례로 섬멸했으며, 서서히 스러져가던 제국을 다시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되돌려놓은 인물이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황제의 권위를 되살린 자였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성군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수만 명의 신민들과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끔찍하고 굴욕적으로 처형시킨 반대파들,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인 다음, 황권을 강화하면서 다시 진행된 피의 숙청까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얼룩진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모인 그들은 그 학정에 진절머리가 난 귀족들의 모임이기도 했다.

“다 왔다.”

한 때 제사, 제국의 스승이자 여왕의 최측근이었던 아에르제 가르얀이 혹여 누군가 들을까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다.

“지금껏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녀는 항상 이 시간대에 아무런 호위나 보호장치 없이 홀로 이 앞 알현실과 서재를 오간다고 하더군.”

다시 한 번 주변에 자신들 이외의 존재가 없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나서야 아에르제는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기회는 한 번 뿐이다. 이번을 놓치면, 다음에 궁궐 출입문 위에 내걸리는 머리들은 우리의 것이 될 테니.”

그 말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누군가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번 한 번으로 성공한다면 그 쓰레기 년의 목이 걸리고, 우리가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동지들.”

그 여자에게 모든 가족이 죽은 오스페르 백작이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거렸다. 오스페르 백작의 농담 덕분인지 조그마한 웃음과 함께 그곳에 있던 자들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농담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백색 여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테니.”

제사의 진중한 말에 다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처음과 같은 긴장감이 아닌,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오는, 그런 값진 침묵이었다.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기다림 뿐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확한 장소에 그 괴물이 다다랐을 때 순식간에 해치우면 되는 일. 참을성 있게 그들은 기다렸다. 십 분, 이십 분, 삼십 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왕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해 늘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특징으로 늘 일정한 박자로 쇠지팡이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들 지쳐서 하품을 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긴장감과 피로감에 하나 둘 그들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오늘 임무를 미뤄야 하나? 오늘 누군가 배신해서 계획을 홀린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하던 그 순간이었다.

또각, 또각따각. 또각, 또각따각.

틀림없는 여왕의 발걸음과 지팡이 소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정숙한 복도의 침묵을 깨뜨렸다. 덕분에 다들 피곤해진 상황에서도 일제히 정신을 차리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바이세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여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정에 빠지는 걸 기다리던 그 순간,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여왕은 그들이 생각한 최적의 거리 바로 바깥에 우뚝 멈춰섰다. 처음엔 발을 헛디딘 줄 알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여왕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귀족들과 장군들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씨익 웃어보였다. 빛 하나 없이 차가운 눈동자가 섬뜩하게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만 나오시지요, 여러분들. 그런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 탓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의 건강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여왕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더욱 차갑게 복도에서 메아리쳤다.

“이렇게 늦은 밤에 절 찾아오시다니, 그것도 저의 서재 쪽으로 오실 정도면 정말이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많았나 봅니다?”

깡깡 웃으며 히죽 웃어보이는 여왕. 달빛을 받아서 그런 지, 그날따라 괴물의 흰 치아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났다.

“...헛, 안 자고 있었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스승이 모습을 드러내자 놀랍지도 않다는 듯 그 쪽으로 눈길을 흘끗 주고는 거만하게 까닥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아, 스승님도 거기 계셨군요? 늦은 밤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다들 중무장을 하고 계시니, 스승님의 건강은 여전히 멀쩡한 듯 하여 이 제자가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한껏 비꼬며 그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돌바닥에 쿵 내려찍었다.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특히 거짓말을 감지했을 때 하는 버릇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감히 제국의 황제가 거하는 곳에 무장을 하고 들어온 것이지? 아, 그랬군. 그대들의 목표는 나인가? 내가 너무 유약했어…….”

여전히 싱글싱글 웃는 괴물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웃음을 빙자한 피의 전조였다. 늘 누군가를 죽이기 직전에 저렇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피어냈기에, 열 세명의 용사들은 무기를 뽑고 기세등등하게 맞섰다.

“닥쳐라, 이 악마야! 네 년의 잔혹한 폭정에 모두가 학을 떼고 있다! 스스로 성군이라 포장하며 모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수백 년 이어진 제국의 역사에서 그 악명높은 폐제조차 너보다 많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아에르제의 일갈에도 인면수심의 그것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계속 하라는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그럼에도 지금껏 제국을 위해 해온 일들이 있으니, 암전히 퇴위에 합의한다면, 그 목숨 정도는 보전해 줄 의향이 있으니, 칠 일 이내에 정식으로 조서를 발표하라.”

“방금 그 말, 협박인가?”

그것의 고개가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어째서 네놈같이 똑똑한 놈이 아직도 이 세상의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 한 채 내게 퇴위를 종용하는 지…….”

그것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있었다. 분노, 아쉬움, 슬픔 등. 하지만 제국의 유일무이한 황제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후후후후……. 하하하하하!”

갑자기 괴물은 다시 한 번 깔깔 웃어댔다. 갑자기 웃음을 푹 멈추고 열 세명의 영웅들을 바라보고는 다시 미친 듯 웃었다. 그곳에 있는 영웅들조차 그 웃음에 질려버려 자기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여러분, 정신차리십시오! 저 요물의 웃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서 칼을 뽑아 저것의 목을 찹시다!”

열 세 명 중 제일 용감하고 제일 나이가 어렸던 페테르 클뤼게 남작이 용감하게 발을 내딛으며 힘차게 자신의 명검을 휘둘렀다. 보기만 해도 소름을 돋게 하는 칼날이 달빛을 가르고 정확히 요물의 경동맥을 향해 날아갔다. 췌액하며 칼이 공기를 가르는데 고막을 강타한 다음 묵직한 무언가가 돌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고요했다. 페테르 남작도, 그것도, 아무 것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열 두 명의 영웅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페테르 남작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작, 괜찮……으시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남작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작의 피를 뒤집어 쓴 괴물이 흰 치아를 활짝 드러내며 공포스럽게 서있었다.

“이건 반역이군…….”

지팡이를 익숙한 손놀림으로 휘휘 털자 피가 떨어져 나와 은빛 지팡이의 본체가 다시 서늘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영웅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괴물은 하늘의 두 달에게 양손을 뻗었고, 달들은 기괴하게 시들어가며 그 빛을 괴물같은 것에게 봉헌했다.

“나, 검은 하늘에서 가장 희게 빛나는 존재, 길잃은 자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는 존재, 세계를 바로잡는 존재가 너희에게 선고한다.”

영웅들은 공포에 질린 채, 또 마지막 용기까지 쥐어짜내며 그것에게 무기를 휘둘렀지만 달빛의 가호를 받는 중인 괴물에게는 전혀 닿지 않았다. 마치 저 멀리 있는 달들처럼.

“Ey, tei mrtei. Qi, tei reid mchenzdualei.”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죽인다. 여기, 너희들의 심장이 멈춘다.

열두 명의 용사들은 신성어로 된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 했다. 오로지 부질없이 싸우다 죽기 바빴기 때문에.